

양돈산업 투자 대상지로서의 중·동부 유럽

원세현 역

((주)동방)

최 근 들어서 물가는 안정세로 돌아섰지만 내수시장은 회복될 기미를 보이고 않고 있다. IMF 관리체제하에서 한국기업들에 있어 유일한 돌파구는 수출 증대이며 얼마나 효과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느냐가 관건이다. 전년에 비해 대일 돈육수출은 늘었지만 98년 9월 들어 양돈두수는 사상최대인 8백만두로 돈육 소비감소와 맞물려 '99년 3월까지 돈가의 회복이 어려우리라 예측하고 있다. IMF 이전만 해도 중국, 베트남, 폴란드 등 외국 양돈분야에 투자하는 이야기가 무성하였으나 '98년들어 기업 및 축산단체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보기 어려워졌다.

이런 와중에도 세계경영이란 모토로 한민족 경영을 외치던 모 그룹은 국내 고용인보다 외국 투자법인의 고용인이 많아졌다는 이야기를 메스컴을 통해 전해 들었다. 이젠 양돈산업도 국내 돈육소비에만 얽매어 있지 말고 양돈 생산성 향상과 함께 과감하게 외국으로 눈을 돌릴 필요성이 있으리라 여기며 참고하기 위해 <PIG INTERNATIONAL 9월호에 실린 '양돈산업 투자 대상지로서의 중동부 유럽'>을 번역하였다.

중·동부 유럽

구소련 위성국으로 동유럽 블록의 일부분이었던 중·동부 유럽국가들 스스로 독립성을 확인한 정치적 변혁을 선택한지 거의 10년이 되어가고 있다. 중앙 정부의 계획하에 생산하던 농업은 중

말을 고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변화도 정치변화의 영향으로 일어났다. 거의 10년에 걸쳐 양돈분야도 현대화 되어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긴 시일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과정에 재정적 투입을 지원하고 있어 중·동부 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해외자본의 투자대상지로 지목받고 있다.

그들이 개인이든 외국법인이든간에 관계없이 잠재적 투자자들이 가장 적절한 투자대상지를 찾기 위한 가장 최근의 단서가 필요하다. 헝가리 양돈 전문가인 미할리 코스마박사(Dr Mihaly Csoma)에 의해 가장 분명한 기본적인 필요조건들이 제시되었으며 농장 이외에도 농장들에 필요한 양돈 생산 분야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지역내 충분한 양의 곡물과 양질 사료 생산:
-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
- 전문적인 수의 서비스 제공 및 약품의 이용
- 기술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설비
- 국내에 판매하고 수출하기 위한 제품의 마케팅 능력
- 외국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위생적인 도축시설
- 지속적인 연구개발 활동

코스마박사는 헝가리 양돈분야 그 자체만으로 내부와 외국 투자자에게 있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사실상 이웃나라들로 부터의 내륙 투자는 이미 시작되었다. 오스트리아, 벨지움, 독일, 이태리, 네덜란드 투자자들은 양돈장을, 지역 도축장은 오스트리아와 이태리 사업가들이 사들였다. 나라에서 운영하는 세가스(Seghers), 유

리브리드(Euribrid)와 피아이씨(PIC)와 같은 국제적인 중돈회사와 합작 투자한 사료회사 및 동물약품은 여기에 제외시켰다.

헝가리 양돈에 직접적인 투자 매력은 유럽연합에서 얻을 수 있는 것 보다 높은 이익 마진을 얻을 수 있다는 데 있다. 주요 투자 비용으로 사료비, 에너지비용, 임금을 들 수 있는데 최근까지도 서유럽의 평균수준 이하이다. 1998년 사료가격대 생체 돈육가격 간의 비율은 1:8이다. 지난해 돈육생산을 위해 약 7백5십만두를 도축한 것과 비교해 보면 헝가리 양돈산업은 비육돈 1천1백만~1천2백만두를 사육할 수 있을 정도로 풍부한 곡물을 재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최근의 높은 돼지가격으로 적기에 자금을 투자한 투자자들은 빠르게 이익을 챙기고 있으며 그들중 많은 사람들은 투자한 자금을 이미 되찾았다. 지난 수년간 또는 현재의 경험으로 볼 때 헝가리 양돈산업은 양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잠



헝가리의 양돈산업은 외국 투자자들의 유입으로 인해 이미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정치적 변혁기 초기에 여러 수출시장을 잃었으며 연간 돈육생산량이 약 절반이하로 떨어졌었다. 만일 질적으로 개선만 된다면 확대를 위한 보다 많은 가능성이 열려있다.

20%의 시설이 완전히 황폐화된 걸로 추정되기 때문에 많은 돈사시설의 개축이 필요하다. 그러나 새롭게 시작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고 유럽연합에 가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가정용 내수 시장의 증가와 함께 마케팅 기회가 더욱 더 증가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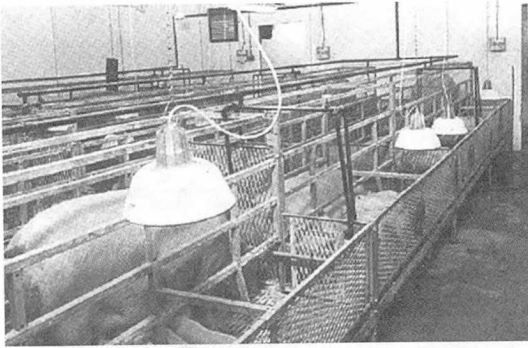
현재 헝가리의 돈육소비는 매우 적지만 국가 경제 성장에 동반하여 증가할 것으로 코스마 박사는 확신하고 있다. 정치적 변화 이전 연간 1인당 돈육 소비량인 39Kg 수준에 도달하는데는 오랜 시일이 걸릴 것이다.

중부와 동부유럽과 관련한 지난 몇 개월간의 좌담을 종합해 보면 헝가리는 다른 이웃 나라들보다 외국 투자를 많이 받고 있다. 통계적으로 1980년 이후 모든 산업투자의 절반 이상이 이 지역에 투자되었다. 지난 5년간 많은 자금이 폴란드에 들어갔지만 농업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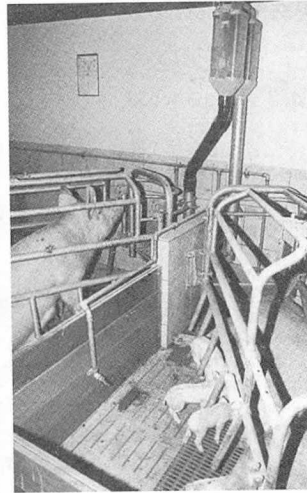
거대한 미국이 폴란드를 주시한다

미국의 유력 계열화/육가공업체 회사인 스미스필드 식품(Smithfield food)은 폴란드내 양돈에 2억 5천만불을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최근 바르샤바 비즈니스 저널에 보도되었다. 스미스필드 식품회사는 약 3만3천 헥타의 땅에 모든 10만두를 근간으로 양돈생산 네트워크를 발전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1991년부터 1997년 사이에 외국인이 1만 4백2십헥타의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하였지만 폴란드 정부가 허가해준 토지는 647헥타에 불과한 것으로 보도하였다. 반면에 십만 헥타 이상의 토지가 외국회사에 임대되었으며 임대한 회사는 주로 독일과 네덜란드 회사이다.

폴란드 파트너와 합작투자할 경우 토지를 이용하기 위한 정부 부서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으며 1997년 말까지 238명의 외국인과 외국회사가 이러한 방식으로 임대한 토지는 96,800 헥타이며 이 농장토지에 대해 한시적인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



헝가리에서의 재래식 및 현대식 분만시설 사진: 총 양돈 사육두수는 감소하는 반면에 선도농장의 시설 및 돈사는 질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투자계획이 반대에 부딪힌 경우도 있다. 1998년 초 한국의 모 그룹이 연간 350,000두 생산 능력을 가지는 중돈 및 비육농장을 세우려는 계획을 가졌는데 북동부 엘블라그(Elblag) 지역 농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힌 것으로 보고되었다.

중·동부 유럽의 축산분야의 개혁과 관련

프로젝트에 들어간 비율은 헝가리가 더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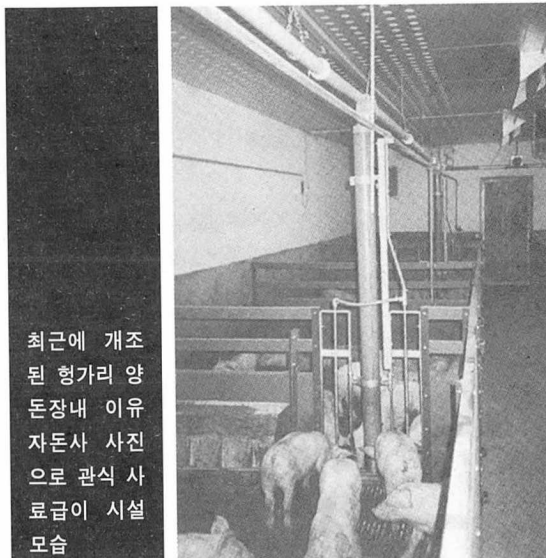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란드는 양돈산업에 외국 자금을 끌어들이는 최초의 사례로 남아있다. 덴마크와 독일의 양축가들이 땅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구식 돈사시설을 개조하여 사업을 시작하였다. 폴란드 북서부 한 지역에는 모든 5,000두를 완전히 덴마크 생산 프로그램으로 키우는 농장이 있으며, 이 지역의 도축장에 돼지를 공급할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폴란드에서의 좋지 않은 사례로

하여 미국 농무성 외국 농업 서비스로부터 나온 최근 보고서에서도 폴란드와 헝가리가 채택되었다. 이는 다른 나라들보다 이들 두 나라에서의 축산분야 개혁과정이 더욱 앞섰음을 의미한다.

이 두나라는 외국시장의 품질규격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영리지향의 개인 농장주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폴란드에서는 1989년 이전에도 돼지의 약 75%를 개인 농장이 소유하고 있었다. 현재 헝가리의 총 돼지 두수중 절반정도가 기업농장에 속해 있으며 그들중 많은 부분은 외국인 소유로 되어있다. 외국인 투자는 헝가리내 가공산업을 완전히 사유화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반면에 폴란드 육가공산업의 약 60%가 사유화되어 있다. 이 지역외에 다른 나라들은 외국으로부터 많은 자본을 양돈분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재산소유권 및 개인 소유 이상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여야 한다.

이같은 예로 루마니아가 자주 인용된다. 루마니아는 고려해볼만한 대상지역이고 곡물 생산 잠재력이 커서 양돈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해 많은 서유럽 투자자들이 방문하지만 경제적 과도기 이전에 물려받은 구조적 문제의 해소와 함께 땅을 사고파는 새로운 국가정책에서부터 이해관계가 시작된다.

중동부 유럽지역의 또다른 국가들중 투자 대



최근에 개조된 헝가리 양돈장내 이유자돈사 사진으로 관식사료급이 시설 모습

상지로 신뢰할 만한 곳으로 최근 슬로베니아에 대해 들은 적이 있다. 이전 유고슬라비아로부터 분리독립되었고 슬로베니아의 아드리아해 주(Adriatic state)는 이태리 국경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어 법인 투자자들의 눈을 사로잡고 있다. 비록 양돈생산은 비교적 적지만 기술적으로는 매우 발전되



헝가리내 대규모 신규 양돈장에 설치된 완전 자동 먹상급이 시설과 개별 스톨에 들어가 있는 모든 사진

루마니아에 대한 밝은 전망

최근 루마니아 정부 발표로 국영 양돈장에 외국자본을 포함한 새로운 자본이 투자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최대 국영 양돈장이 개인 사유화 농장이 되었다. 로만시인군 수인프로드에 위치한 기업농장(이전 최대 국영 양돈장)은 최근 모든 3,300두 수용능력의 현대식 축사도 지었으며 수입된 PIC 유전자로 GP 농장도 마련하였다.

이전에 양돈지역으로 명성이 있던 50개 주의 농장중 단지 4개만이 사유화 되었지만, 새롭게 선출된 수상이 우선적으로 농업분야를 개선하겠다고 공약하였고 의회에서라도 토지 매매를 손쉽게 하기 위해 입법화하고 있으므로 머지않아 다른 주의 농장도 사유화 될 것이다. 이 양돈장들은 45,000두에서 250,000두 이상으로 규모가 상당히 크다. 그들중 가장 큰 양돈장은 모돈이 65,000두로 2달 전에 매매되었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시설의 재건축이 절실하지만 주 소유 농장들에 대한 정부지원이 작년 2월로 중단되었다.

현재에는 양돈생산에 대한 외국자본의 투자가 없으나 서부 유럽에서 흥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빠른 시일내 투자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산업화 범주 내로 새로운 자본이 일어날 것이다. 현재 연간 1인당 돈육소비량 15Kg이지만 국가경제가 개선되면 소비량이 증가할 것이고 과거 40Kg 수준에 도달하는데는 시일이 소요될 것이다. 루마니아 양돈두수는 1989년도 1천 4백만두였으나 현재에는 4백만두로 이미 돈육 부족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풍부한 도축시설을 가지고 있다. 약간의 도축시설은 현대화되어야겠지만 미국이나 유럽의 위생수준에 적합할 정도로 위생수준이 양호하다.

지난해 돼지 가격은 자유시장 체제하에서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며 1998년 중반 생체 Kg당 US\$1.10~1.20인 반면 생산비용은 Kg당 US\$ 0.80이다. 가격은 육질기준으로 변할 예정이므로 유전자나 시설에 투자를 하게 될 것이다. 대부분의 곡물이 자라는 남부지방이 경제성장이 특히 좋으며 곡물생산량은 많고 계속 늘어나고 있다. 루마니아 양돈에 투자하려면 지금이 적기이며 새롭게 양돈장을 짓는 것보다 이전에 주 소유 농장을 인수하여 발전시키는 것이 더욱 유리하다.

어 있고 유럽공동체에 인접되어있는 이 점도 있다.

국제적으로 사료를 만드는 기업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발틱주(Baltic state)도 또한 고려해볼만하다. 리투아니아는 유종(oilseed)을 가공하는 설비를 지을 계획으로 인해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까지 이 나라는 가축 사료에 필요한 모든 대두박을 수입하였다. 집에서 키운 곡물을 가지고 단백질류를 지역적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므로 양돈과 양계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義豚**